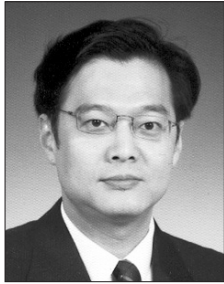


최근 유명한 장관 딸의 특채 논란으로 온 나라가 허탈해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젊은 사람이 5급 사무관이 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는 고시라는 힘든 관문을 뚫고 들어 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시원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인생역전의 꿈을 안고 시험에 응인하는 상황도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시험제도는 그나마 응시제도의 폐단을 차단하고, 부모의 객관적인 지원이나 자산의 수준과 무관하게 소위 '개천에서 용 나'는' 몇 안 되는 기회로 받아들여졌다. 물론 그러한 고시제도의 폐단을 보완하고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채라는 보완적 제도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파문처럼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공조직에 딸이 부하직원의 조직적인 지원과 협력하여 채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전근대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었다. 사실 이러한 코미디는 한편의 에피소드로 끝날 뻔했다. 계급사회의 현실을 긍정하는 보수언론이 애써 외면해서 그렇지 이미 대통령의 특채 논란은 몇 년 전부터 일부 언론에서 다루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불을 지른 건 다른 아닌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론이다.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라



불자 세상보기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사회론의 씹쓸함

고 정의를 내리면서 하반기 국정운영의 기초를 천명하였다. '강부자' 내각, '고소영' 내각, 그리고 최근의 '최승' 내각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주요보직에 오는 인물의 면면이 모두 공정사회의 주체가 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분들이어서 대통령의 그러한 화두는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어느덧 우리 사회의 식자들은 대통령의 인사기준인 '일 잘하는 사람'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박영준 지경부 차관의 증용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대통령의 인사기준은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측근'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이 이러다 보니 다수의 국민들이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을 리 없다. 아마도 대통령을 비롯해

서 이 프로젝트의 기획자로 알려진 임태희 비서실장은 그러한 현실에 어느 정도 조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치공학'적 계산을 하신 듯하다.

그렇다.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공정사회론은 대단히 정치공학적인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대통령이 언급한 기회의 공정함은 사실 상식과 원칙에 충실하면 모두 가능한 것들이다. 우리국민의 상식적인 수준에만 눈높이를 맞춰도 장관의 딸이 불공정하게 특채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며, 고

용불안정은 사업주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는 최소한 어음지급만이라

도 확실하게 근절시키고, 사학재단의 비리는 법대로 고발조치하면 되는 것이다. 별로 어렵지 않은 원칙인데도, 기득권층을 보호하면서 서민대중을 안정화시키려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정치공학으로 동원된 공정사회론은 심지어 보수 기득권 계층에게조차 불편할 뿐이다. 보수언론의 대변자인 조선일보의 아예 내놓고 "어떤 공정사회를 무슨 방법으로 이뤄낼 것인가?"라는 사실에서 기득권층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러한 정치공학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공학의 일환으로 일부 권력자들과 재벌에 대한 사정의 칼날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그러한 '쇼쇼쇼'는 없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두 번 속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국민은 그러한 쇼를 보고자 하지도 않는다. 다만 상식에 기초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원할 뿐이다. 이는 대통령의 시각처럼 공정한 법집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그러한 생각은 위험하기조차 하다.

애초에 조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의 공정함을 아무리 강조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인가? 말 그대로 공정한 사회는 불평등한 기회의 조건 자체를 공평하게 만드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성과지상주의 선입견부터 바꾸는데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사설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 세워야 할 때

한반도의 기후 변화가 심상치 않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덥다. 여기에도 많은 강우와 바람으로 혹독하게 보내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같은 아열대기후로 변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실제로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지난 100년 동안 1.5도 상승했다. 2070년이 되면 한반도 이남에서 겨울이 사라져 눈을 보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는 우리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새로운 질병의 출현이 염려된다.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질병이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미처 면역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더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 작물의 재배 적지가 크게 바뀌고 있다. 사과의 경우 추산지가 경북지역인데, 근래 몇 년 사이에 강원도 영월까지 올라갔다.

법규위원회, 종도 신뢰 되찾아야 한다

조계종단의 권위 있는 종헌기구인 법규위원회가 민망한 처지에 놓여있다. 성희롱 논란에 휩싸여 있고, 법규위원회가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규위원회는 8월 30일 초심호계원의 탈빈 판결에 대해 무효 취지의 심판청구를 심의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여성을 상대로 질의를 벌였다. 그런데 이 여성이 성폭행에 준할 정도의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권상담소에 호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국가기관에 종단의 일이 제소된 것도 초유의 일이며 종단의 중진스님들로 구성된 법규위원회가 불미스런 일의 진원지가 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법규위원회는 이후 열린 회의에서 해당 여성에게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정작 수치심을 느끼게 질문을 한 법규위원 스님은 사과할 뜻이 없다고 한다. 이런 일에 시간을

에 따라 작물의 재배 적지가 크게 바뀌고 있다. 사과의 경우 추산지가 경북지역인데, 근래 몇 년 사이에 강원도 영월까지 올라갔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기후 탓에 일찍이 목조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연구에 힘을 쏟았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만하지만, 우리 목조 문화재만이 갖는 재질과 건축공법의 특성이 있으므로 일본의 것을 따라가선 안 된다. 종단과 정부당국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때다.

풀어서는 안 된다. 증인으로 나온 여성

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법규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유감을 표한 만큼 질의 당사자도 흔쾌히 사과해야 한다. 법규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법규위원회가 징계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규위원회는 종법의 종헌 위배 여부 심판, 종령·규칙과 행정처분의 종헌 종법 위배 여부 심판, 중앙종무기관·지방종무기관간의 권한 쟁의에 관해 심판을 하는 기구다.

법규위원회는 승랍 25년 이상의 스님들로 구성된 종단의 권위 있는 기구다. 이런 종법을 심사하는 등의 중대한 소임이 맡겨져 있다. 최근의 불미스런 일을 하루속히 마무리 지어 종도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 요즘, 연이은 태풍과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다. 험악하고 험악한 추수를 앞둔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과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는 이들의 시름을 보도하는 뉴스가 연일 계속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강한 비바람과 함께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은 농민들이 지난 일 년 간 쏟아 부은 노고와 정성을 깊은 한숨과 눈물로 바꾸어 놓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농수산물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도심에 사는 이들에게도 높은 가계지출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번 추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청명한 하늘 아래 서늘한 가을바람이 고요한 평화롭고 풍성한 명절이 되길 간절히 기원하게 된다. 모두가 애써 지은 결실을 함께 나누며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우리의 명절 추석이 되길 더욱 기대하며 기다리게 된다.

추석이라면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귀성길 전쟁을 걱정한다. 이 날만큼은 늦도록 불을 밝히던 도시도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그리던 고향의 품을 찾아 떠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늘날의 추석에는 민족의 명절이라는 의미와 함께 '민족 대이동의 날'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 올해도 기나긴 귀성길에 올라야 하는 많은 이들은 올 추석도 지난 것처럼 교통대란에 시달리지는 않을 게 염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추석은 긴 연휴로 인하여 교통대란을 피



사부대중 칼럼

가섭 스님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추석을 맞으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가져볼 수 있으니 다행이다.

민족의 대표 명절 추석, 이처럼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것도 걱정할 것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모두가 한번쯤은 추석이 갖는 본래의 아름다운 의미에 대해 기억했으면 한다. 추석은 우리 민족에게 귀향과 귀경을 통해서 조상을 섬기고 가족의 정을 나누는 시간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각 지역과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이들이 고향을 찾아 그간의 소식을 전하고 정을 나누며 소박한 기쁨을 느끼는 시간. 이는 객지 생활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다시금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소중한 경험이 된다.

이러한 추석의 시작은 아주 오래 전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의 정감 넘치

는 추석에는 그 유래에 따른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가위'이다. 여기서 '한'이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란 '가운데'를 나타낸다. '가위'란 신라시대 때 여인들이 실을 짜던 길쌈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길쌈을 처음에는 '가베(嘉裊)'라 부르다가 차츰 변하여 '가위'가 되었다. 맛있는 송편, 기름진 음식, 전 등 갖가지 별식과 밤, 대추, 머루, 다래, 배 등의 햇과일이 푸짐하게 마련되면 모든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둥그렇게 둘러 앉아,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노래와 춤을 즐겼다. 이 흥겨운 잔치는 사람들의 소탈한 웃음 속에 늦도록 계속 되었으리라. 해가 진자리에 둥근 달이 떠오르면 사람들은 밝은 달빛 아래에서 갖가지 놀이를 즐기

며 축제의 밤을 이어갔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굴곡진 인생의 여정들을 둥근 달과 함께 평화롭게 녹여낸 조상들의 슬기와 멋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축제, 이것이 한가위라는 신라의 큰 명절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한가위는 잔치를 통한 나눔의 의미도 담겨있다. 요즘에는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동안 애써 거둔 결실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명절의 기쁨을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감과 그 실천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소외와 고독 속에서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 누군가의 관심과 정을 그리워 할 홀몸노인, 일찍이 짊어진 짐겨운 무게 속에 명절의 즐거움마저 잃어버린 소년소녀가장들, 그 밖에 삶의 희망을 잃고 지쳐있는 많은 분들. 이들은 어쩌면 우리와는 사뭇 다른 추석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번 추석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명절의 진정한 의미, 애써 얻은 귀한 수확들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더욱 크게 키워갔던 옛 조상들의 아름다운 지혜를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실천해보면 어떨까. 올해에는 그들을 위해 보름달 같은 넉넉한 나눔의 마음을 밝혀보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사총괄팀 실시간 뉴스 토크뉴스 불교포털 부디피아 소평을 전문상담팀	www.hyunbul.com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	--	--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적중도 최고 효과성 최대효사활인천역 집2010완결보정판 구입교환및육임활 용서학습서구입안내

1. CD프로그램

교환대상	효사활인천역집 I, II, III, 완결판 소지자	
교환가격	효사활인천역집 I 교환	15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II 교환	12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III 교환	8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완결판 교환	50만원
신규구입	효사활인천역집 2010완결 보정판	500만원
기능	원터치 · 매일 매시간별 자동화면 · 동일 시간내 다수방문자 구분식별 · 상담 메모리 · 자료출력 등등	
장착목록	(아래 제 3항참조)	

3. 육임활용서(위 1항 CD프로그램에 장착 됨)

① 효사육임산책	2010최신판(휴대용)	1·6·60권	250만원
② 효사육임복변집	2010 보정판(좌정용)	1·6·60권	250만원
③ 육임대계전서	2010개편본(휴대용)	1·6·60권	250만원
④ 육임풍수	2010개편본(휴대용)	1·6·60권	70만원
⑤ 육임1년신수비결	2010개편본(좌정용)	1·6·60권	35만원
⑥ 육임래정비법	2010개편본(휴대용·좌정용)	1·6·60권	50만원
⑦ 도사에게 물어봐	2010증보판 육임길흥성부상담지침록(휴대용)		10만원
⑧ 육임사주감정법	2010개편본(좌정용)		20만원
⑨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좌정용)			12만원
⑩ 효사속 사주(CD전용)	⑪ 성명학(CD전용)	⑫ 매화역수(CD전용)	
⑬ 월령도(CD전용)	⑭ 부적보감(CD전용)	⑮ 동의보감(CD전용)	

2. 미리보고 먼저 알게되는 자동화면의 우선항목들

- 시보(時報) : 왜 왔는가?)
- 내정(來情) : 어떤 정황인가?)
- 득지(得知) : 무슨 비밀사정이 있는가?)
- 아타(我他) : 저지른 일인가, 일어날 것인가?)
- 미기(未既) : 이미 일어났는가, 일어날 것인가?)
- 귀신(鬼神) : 어떻게 죽은 · 누구의 귀신이 침범했는가?)
- 병귀(病鬼) : 무슨 귀신침범으로 병이 났는가?)
- 사송(邪祟) : 신변 · 기택 어디에 무슨 부정이 들었는가?)
- 산소(山所) : 누구 묘지, 무슨 좌향 · 물형, 어떤 경관인가?)
-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해소 시킬수 있는가?)
- 비방 · 부적 · 굿 · 천도제 · 불제 등의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며칠 후 언제 해야만 좋은가?
- 이외의 24개항목의 길흉성부를 결정지어 놓았고, 50여 인사(人事)문제도 미리보고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화면 배치 했습니다.

4. 육임학습서

- ① 효사육임강론 2010개편 증보 제 8판본 上권 종합학습편 1800쪽
- ② 下권 활용편 1800쪽 사과 삼천포 · 천지반포 · 과 · 격 체출법 및 각 상의 · 국수 해설 · 24개 항목별 단정 및 대별 교제 적시함

구입 승인 교환 안내 011-9795-1773 담당 양광표 / 계좌번호 : 농협 356-0340-6628-13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배상 www.taotemple.net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